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월간소식지

창조

발행일 2011년 11월 8일 (화)

발행인 성영관 편집 김종성

주 소 (700-821) 대구 중구 동산동 234

전 화 070-4095-6420

홈페이지 <http://creation21.or.kr>

I 이달의 소식

- | | |
|-----------------|----|
| 1. 모임안내 | 1쪽 |
| 2. 대구지부/ 전시관 사역 | 2쪽 |

II 내용

- | | |
|--|-----|
| 1. 노아의 홍수 (51) 표이석 - 이재만 | 4쪽 |
| 2. Victor's Bible Journey (30) 유월절 - 이종현 | 6쪽 |
| 3.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16)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김무현 | 9쪽 |
| 4. ICR Article 번역: 깃털달린 공통전시에 빠진 깃털 - 대구지부 역 | 14쪽 |

인사말



대구교육이 아침독서 10분 운동을 시작한지 몇 년이 되어, 아이들이 책을 읽는 습관이 잘 자리 잡았습니다.

제 책상위의 창조과학회에서 출간한 여러 가지 책을 쉬는 시간마다 와서 보기도 하고 질문도 합니다. 그리고 과학수업시간에 화석을 배울 때도 창조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지층을 배울 때도 오랜 연대가 아닌 급격한 어떠한 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도 함께 생각해보았습니다.

특히, 과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고3까지 선행 학습한 학생은 나름대로의 체계를 가지고도 초등학생 다운 질문을 수없이 합니다. 어린이 플래시자료를 통해 재미있게 공부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교과서보다 더욱 재미있는 과학수업이라는 소리를 아이들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가 아이들의 잠자는 두뇌를 깨우길 기도해봅니다.

-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회원 최 선 향 올림 -

1. 모임 안내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전시관에서는 12월 1일(목), 창조과학 기본과정(매주 목요일-5주 과정) 5주차 강연과 종강예배 및 수료식이 진행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가지는 가운데, 상호교제를 통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2월 1일 기본과정 2기 강연과 수료식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사: 권진혁 교수(영남대학교)

일시: 2011년 12월 1일(목)

7:30~8:30 pm : 강연

8:40~9:40 pm : 종강예배 및 수료식

장소: 창조과학회 대구전시관

제목: "창세기 대홍수"

문의: ☎ 070-4095-6420



대구전시관 오시는 길

070-4095-6420
대구전시관(수도빌딩 2층)

남부경찰서

123노인요양
복지센터

1호선 영대병원역
1번출구

현충로역

명덕시장 네거리

영대병원 네거리

대구 남구 대명5동 207-1번지
수도빌딩 2층 (705-8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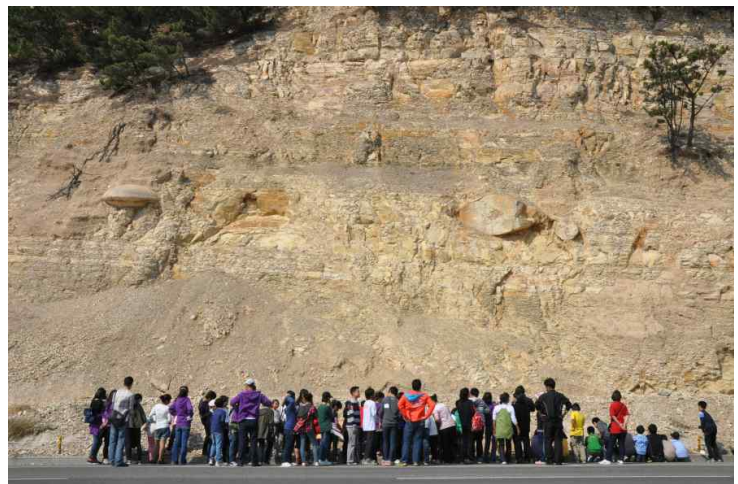
2.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 전시관 사역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10월엔 기독교 대안학교인 트윈사성학교 학생들과 송촌장로교회 초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항지역으로 창조과학탐사여행을 인도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층이 잘 발달되어 있는 화석지 및 거대결핵체와 주상절리가 잘 나타나는 장소 등에서 오랜 연대설적 해석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창세기 대홍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더 잘 설명됨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해 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키워내는 멋진 **한동대학교**에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친절하신 법대교수님의 설명으로 학교도 구경했습니다.

앞으로 창조과학탐사여행이 각 지역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창조와 심판의 흔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 생각 속에 들어있는 진화론적, 오랜 연대설적 사고의 한계성과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며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피조물인 피조계** (자연이란 말보다 이 낱말로 쓰면 어떨까요?^^*)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께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0월 3일엔 특별히 신동수 선생님과 이종현 선생님께서 대구·경북 교수선교회(CHISTA)에서 주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조과학특강으로 귀하게 섬겨주셨습니다.

또한 10월 9일부터 30일(주일)까지 **4주간 서현교회 교육관 9층에서 교회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창조과학특강**이 이루어졌습니다. 제 1강은 신동수 선생님(계명대학교 화학공학과 명예교수)께서 “**생명, 그 완벽한 디자인**”이라는 제목으로, 제 2강은 성경관 선생님(경북대학교 의대 면역학교실 교수)께서 “**진화론의 허구성**”에 대해서, 제 3강은 이종현 선생님(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께서 “**창세기 대홍수**”에 대한 과학적, 성경적 증거 등에 대해서 나누셨으며, 제 4강은 권진혁 선생님(영남대학교 물리학과 교수)께서 “**젊은 연대**”라는 제목으로 지구와 우주의 연대에 대한 오랜 연대설적인 신념(지구는 46억년, 우주는 136억년)의 문제점과 젊은 지구와 우주에 대한 증거를 통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외 김종성 선생님(과학 강사)과 최송화 선생님(창조과학회 대구전시관 실험카페 활동 강사 및 대구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선교담당 간사)께서 하양열린교회 등에서 창조과학특강으로 섬겨주셨습니다.



특히, 10월 30일 주일 동부교회 어린이 오후 예배 창조과학특강시간에는 **세포 1개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음**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유전정보에서 일부가 잘못되었을 때 나타나는 여러 질병과 장애를 살펴봄으로써 참으로 위대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다시금 확인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온 땅에 회개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2011년 마지막 창조과학특강 시간이어서 이번 달에는 먹을 수 있는 재료를 조별마다 달리 해서 각 조별로, 혹은 개인별로 창의적으로 **세포모형을 만드는 활동**을 했습니다.

점과 드레싱 등으로 마무리한 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음식을 공급하시고 또 신묘막측한 소화기관 등을 포함한 우리의 건강한 몸을 허락하신 주님께 **“사랑합니다!”**라고 천만 번이라도 외치고 싶은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에 감사합니다.



11월 3일(목)엔 **창조과학스쿨 기본과정 2기 개강예배**가 오후 7시 30분에 있었습니다.

이번 기본과정에서는 특별히 경산제자교회의 **송석우 목사님**께서 등록하셔서 개강예배 때 축도로 섬겨주셨습니다.

앞으로 대구지부/전시관에서 기본과정뿐만 아니라 심화과정, 강사과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창조의 진리가 이러한 과정을 훈련받으신 귀한 분들을 통해 널리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



지질학적 증거 - 표이석

“물이 점점 감하여 시월 곧 그 달 일 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창 8:5)

The water decreased steadily until the tenth month; in the tenth month,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the tops of the mountains became visible. - Genesis 8:5, NASB

우리 주위에 어렵지 않게 관찰되는 것이 있다. 바로 계곡을 메우고 있는 돌 또는 바닷가나 강가에 널려있는 커다란 바위이다. 지질학 야외조사를 할 때 돌을 보면 이 돌이 이동하여 온 돌인지 아니면 형성된 이래로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돌인가를 가장 먼저 판단하게 된다. 전자의 이동하여 온 암석을 지질학적 용어로 “표이석” (Erratic stone)이라고 한다(그림). 후자처럼 그 자리에서 처음부터 그대로 있는 암석을 “노두” (Outcrop)라고 한다.

표이석은 물에 의해서 운반되었다고 가정하여, 주변의 가장 큰 표이석을 이용해서 그곳에 어느 정도 규모의 물이 지나갔었는지를 계산하려는 노력이 수리학, 지형학, 지질학자들에 의해서 시도되었다.



미국 워싱턴의 표이석 (400톤)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Glacial_erratic

대표적인 예로, 코스타(Costa, 1983)는 실험적으로 강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암석의 직경과 이를 움직이게 하는 속도와의 관계를 수식으로 나타내었다. 루베이(Rubey)는 실험에 의해서 강의 경사와 유량을 곱한 값은 운반되는 퇴적물들의 양과 가장 큰 직경의 퇴적물을 곱한 값이 비례한다고 발표하였다. **(경사) X (유량) ∝ (퇴적물의 양) X (가장 큰 퇴적물의 직경)**. 수리학자인 모리스(Henry Morris)는 그의 책인 응용수리학에서 일정한 크기의 퇴적물을 가지고 실험하여 방정식을 유도하였는데, 그의 실험에서 얻어진 것은, 유속의 작은 변화에서도 강물이 운반할 수 있는 퇴적물의 양이 크게 변한다는 것이다(약 4배정도). 앞에 언급된 실험을 토대로 당시 물의 깊이, 속도, 유량, 경사, 강의 크기, 표면 등을 고려하여 지질학자인 오스틴(Steven Austin, 1985)은 표이석의 크기를 가지고 당시 이를 운반한 물의 깊이(Paleodepth)를 짐작할 수 있는 식을 제안하였다.

여건상 위의 과학자들이 계산한 수식은 언급하지 않지만 그 결과들은 한결같이 **관찰된 표이석의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 돌을 움직일만한 에너지 즉 “사건”을 통해 이동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더욱이 이들 표이석의 양상은 오늘날 일어나는 홍수로 형성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하나의 표이석 뿐만 아니라, 주위의 엄청난 퇴적물이 같이 이동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엄청난 양의 물이 흙과 커다란 표이석을 동시에 휩쓸고 지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표이석이 우리 주위 어디를 둘러보아도 쉽게 관찰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여기까지 운반해 온 그 사건은 과연 무엇일까? **실제로 표이석을 움직일 때에 순수한 물에 의한 운반이기보다는 다른 진흙이나 모래 등에 의해 순수한 물보다 비중이 큰 혼탁류에 의해 운반되었음이 틀림없다.** 노아홍수에서 천하의 높은 산을 덮었던 물을 계산하면 지표 위로 평균 2,590m 깊이 혹은 높이이다. 이 물이 물러가며 바다로 빠져나갔다면 그 에너지는 정말로 엄청났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물은 단지 물만이 아니라 지층의 상부 즉 덜 단단해진 흙도 함께 몰고 갔을 것이며 기존에 단단해진 돌도 부수며 계곡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때 운반된 수 많은 커다란 표이석이 지금의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면 참으로 쉽게 해결된다.

막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자연의 모습에 도달될 것으로 해석했었던 생각이 실재 “실험”을 시도해 봤을 때 언제나, 도저히 시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해석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표이석에 대한 해석도 그 중의 하나이다. 바로 지구전체가 경험했던 사건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성경은 바로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하며 노아홍수 모델은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한다.

출처: <http://www.hisark.com> **참조**

유월절

(The Passover - Exodus 11:1~12:50)

모세는 이집트에 있는 히브리 노예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나일강에 떠 있는 광주리에 들어있는 그를 파라오의 딸이 발견하고는 양자로 삼아서 그녀는 그를 왕자로 키웠다. 어느 날 모세는 이집트인 감독관이 히브리 노예를 때리는 것을 보고 그를 죽였으므로 도망을 가야 했다. 그는 미디안에서 십보라를 만나 결혼했으며, 그의 장인을 위한 목동으로 일했다. 나중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집트로 돌아가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의 보내셨다. 마침내 모든 장자가 죽자 파라오는 히브리인들을 놓아주었다.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를 통과해 지나갔을 때, 히브리인의 장자들은 건넌다. 그 첫 번째 유월절을 지금도 기념하고 있다.

언제

히브리의 문화가 이집트인들에게는 다소 역겨운 것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히브리인이었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 누가 이것을 허락했던 것일까?

BC 1800-1600년경부터 히소스 침략자들이 이집트를 점령했고, 아시아인 파라오가 권좌에 앉았다. 이들 지도자들은 이집트 혈통과 문화를 갖지 않았다. 그들 자신이 외국인으로서 현명한 히브리인이 총리가 된다는 것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시기의 언젠가 요셉이 통치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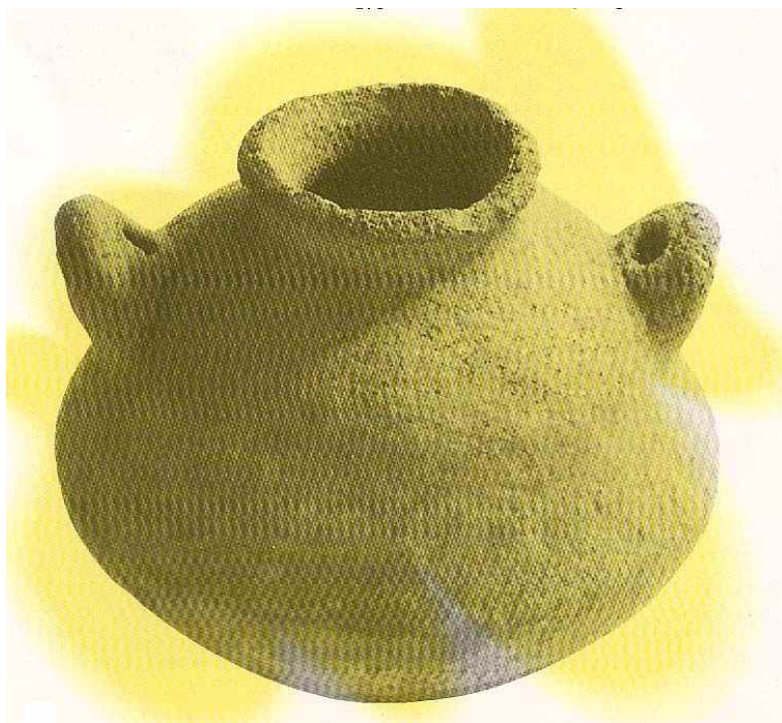
모세는 요셉이 죽고 약 300년이 지나서 태어났다. 모세는 80세가 지나서 히브리인들을 이집트 밖으로 인도했다. 출애굽은 아마도 BC 1500년과 1400년 사이에 일어났으며, 다른 유명한 학설에 따르면 BC 1300년에서 1200년 사이이다.



<BC 1445-1425, 아멘호텝 2세가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있던 때의 파라오일 것이다.>

어떤 파라오?

모세의 출생 당시 히브리인들을 압제했던 파라오는 누구였으며,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 때문에 자기 나라가 신음하던 것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노예들을 놓아주었던 파라오는 누구였을까? 아무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두 가지 잘 알려진 학설이 있다.



<출애굽 때부터 사용하던 도기 항아리.>

“초기”의 학설은 모세의 출생과 출애굽이 BC 150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파라오는 투트모스 3세이며, 그의 뒤를 이어 아멘호텝 2세 때 출애굽을 했다.

“후기”의 학설은 출애굽을 BC 1300-1200년 경 어느 때로 본다. 그 학설에 따르면 사악하고 잔인했던 람세스 2세가 히브리인들을 압제했으며, 그의 뒤를 이었던 약한 통치자 메르넵타가 사람들을 떠나게 했다.

유월절 - 언제 시작되었나

유월절은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땅을 돌아다니며 이집트의 장남을 죽이던 그날 밤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던 히브리인 가정에는 죽음의 천사가 결코 들어가지 않았다.

유월절 - 무엇인가



<우슬초 - 히브리인들이 유월절 밤에 문설주에 피를 뿌릴 때 사용했던 우슬초의 일종일 것이다.>

해가 진 직후에, 아버지 혹은 가정의 머리가 되는 사람이 양을 잡는다. 그 피를 집의 문설주에 뿌린다. 그리고는 양을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는데, 이것은 이집트에서의 쓴 노예생활을 상징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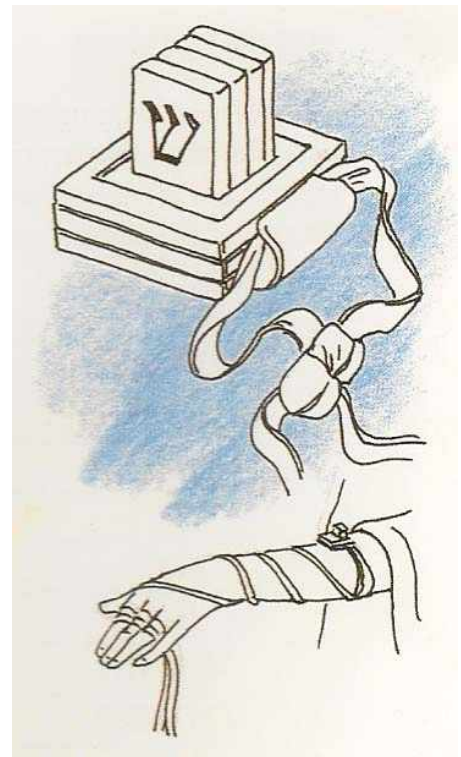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나기 전날 밤에 그랬듯이, 가족들은 이것을 빨리 먹어야 한다. 여행을 떠날 옷차림을 한다.

의식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가장 어린 아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유월절에 관하여 묻는다. 그리고는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참조**

아직까지 매년 봄에 유월절을 기념한다. 이 특별한 날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음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수세기에 걸쳐 유월절이 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축제와 의식적 식사의 시기를 포함한다.

유월절의 의식

유대력으로 첫 번째 달, 보름날 밤에 유월절이 시작된다. 모세의 시대에는 24시간 동안만 지속했었다.



<성구함: 앞이마와 손에 착용했던 작은 상자들.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관해 지시하신 것 중에 출 13:9, 13:16 두 구절을 나중에 성구함에 넣었다.>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할 것인가

1) 문자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Literal vs. Symbolic Interpretation)

성경을 해석할 때 내용 그대로(literally) 해석하는 경우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2가지 경우가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상징이나 시적·문학적 표현이 분명한 경우는 물론 제외) 계시된 내용 그대로 해석하려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당신은 어떠한 경향으로 성경을 해석하려 합니까? 당신은 창세기 1~11장을 계시된 내용 그대로 믿습니까? (한국의 일부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문자적 해석이란 용어에 지나치게 부정적 시각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보수적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성경전체를 있는 내용 그대로 (상징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겠냐고 반문하실 지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의 과학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흙 속에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화학 원소가 들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 원소들을 사용해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흙으로 빚어 어느 모양을 만들 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빚으셨다고 상징적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지만, 있는 내용 그대로 받아들여도 또한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구약성경을 명백하게 인용한 부분을 표본집단으로 해서 살펴보면 총 235회 중, 순수하게 역사적 의미만 갖는 문자적 해석이 약 77%이고, 이중적 의미를 갖는 예표적 해석은 약 22%이고, 순수하게 비유적 의미만을 갖는 풍유적 해석은 약 1%입니다. 예표적 해석은 반드시 문자적으로 그 의미를 가짐을 고려한다면 문자적으로 충실히 해석하여 무리가 없을 확률은 크게는 99%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합당한 방법은 성경을 전혀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시라면 그분은 자신이 뜻하는 바를 그대로 말씀하셨음에 틀림없으며, 사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암호로 쓰여진 어떤 비밀 책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평범한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분은 성경의 각 권을 기록하기 위해 군인, 목자, 어부, 의사, 세리, 왕, 제사장 등 여러 배경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배경의 사람들 곧 부자와 가난한 자, 교육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노인과 어린이, 모든 인종과 모든 국적의 사람들이 다른 어떤 책보다도 더 성경을 많이 읽고 사랑하며 믿으며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시 최선의 법칙은 문맥이 명백히 상징적인 의미를 요구하지 않는 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비유적인 표현 또는 시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는 언제든지 앞 뒤 문맥 안에서 이를 분명하게 해 놓았으며, 비유로 전달해야 할 진리도 문맥 안에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 Henry Morris (from www.inchristjesus.net)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말씀이 상징적으로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지 고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즉, 문자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그 의미를 분명히 이해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1:12~14, 20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을 때,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여 말라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only one destructive miracle by Jesus). 얼마 전 모 대학 신문의 칼럼 란에 한 인본주의자가 “이와 같이 자신의 창조의 피조물인 무화과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주하고 말라죽게 하는지 이와 같이 생명을 경시하고 변덕스럽게 다루는 예수님이라면 나는 믿고 싶지 않다.”고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사람은 이 사건이 성경적으로 어떤 깊은 상징적 교훈과 의미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편견에 사로잡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경우 무화과나무(fig tree)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예레미야 24:5, 호세아 9:10, 누가복음 13:6-9) 여기에서 특히 일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외식에만 열심이고 삶에 열매가 없는 율법주의적 바리새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는 복음서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 저주는 또한,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떠한 고난의 운명에 놓일 것인가를 예언하기도 합니다. AD 70년 로마의 타이투스(Titus)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온 땅에 흩어지는(diaspora)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모스 9:9)

For I will give the command, and I will shake the house of Israel among all the nations, as grain is shaken in a sieve, and not a pebble will reach the ground. (Amos 9:9)

이리하여 완악했던 유대인은 그 저주 안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대신 은혜의 교회시대가 이방인(Gentiles)에게 도래합니다.

저희(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로마서 11:11)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유대인)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맺는 백성(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시대의 성도들)이 받으리라. (마태복음 21:43)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로마서 11:25)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에 동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 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로마서 11:26~28)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하므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호세아 3:5)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에스겔 37:21,26)

이는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 때문입니다(창세기 12:2~3).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23:37-39에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불순종과 그 후에 버려짐, 그리고 마지막에 회복될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 when its branch has already become tender and puts forth its leaves, you know that summer is near;)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태 24:32-33)

우리가 무화과나무를 앞에서와 같이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본다면,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다시 생명력을 찾고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온 땅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나라를 회복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호세아 3:5). 즉, 이스라엘의 회복이 마지막 때 전에 일어나야 하고, 또 그것을 보며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무화과나무를 영적인 이스라엘인 신약시대의 교회로(갈라디아서 6:16), 두려운 주의 날을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한정하여 보는 견해도 있음. 다음 호의 예언의 이중적/삼중적 조명을 참고하기 바람.)

1900여 년 동안 온 세계에 흩어져 유리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Zionism) 순식간에 나라를 회복하는 경이로운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성경예언의 성취중 하나이며, 세계 역사상 그 유래가 없었던 사건입니다. (한편, 한국의 복음주의 진영 중 다수는 “실재적 이스라엘(physical Israel)은 초림으로 끝났고, 그 후에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밖에 없다”라고 강조하는데 반하여, 미국의 보수적 복음주의 진영은 마지막 때와 관련하여 실재적 이스라엘의 회복과 역할을 인정함. 1948년 이전에는 거의 2000년 동안 실재적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의 견해가 우세했음.)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 assemble the banished ones of Israel, And will gather the dispersed of Judah From the four corners of the earth.) (이사야 11:12)

프레드릭 대제(Frederick the Great)와 마르퀴 다르젠(Marquis D'Argens)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프레드릭 대제가 어느 날 다르젠에게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반박할 수 없는 하나의 증거를 댈 수 있겠나?”라고 묻자 “예, 물론이지요. 바로 유대인을 보시면 됩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리아 산의 네 개의 성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은 이미 지나간 과거이고, 미래에는 마지막 칠년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의 가증한 것이 세워질 환란 중 성전(tribulation temple)이 있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돔 형식의 모슬렘 성전인 모스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대로라면 **칠년대환란이 오기 전에 그곳이 유대성전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이스라엘 국민들의 성전회복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서,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전만은 꼭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80%이상이라 합니다. 이와 보조를 같이하여 이스라엘 정부도 예루살렘 성전 회복을 전제한다면 많은 영토일지라도 양보할 용의가 있다는 자세로 팔레스타인과의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기적적으로 회복된 것과 같이 성전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모스 9:11)

In that day, I will restore David's fallen tent. I will repair its broken places.
(Amos 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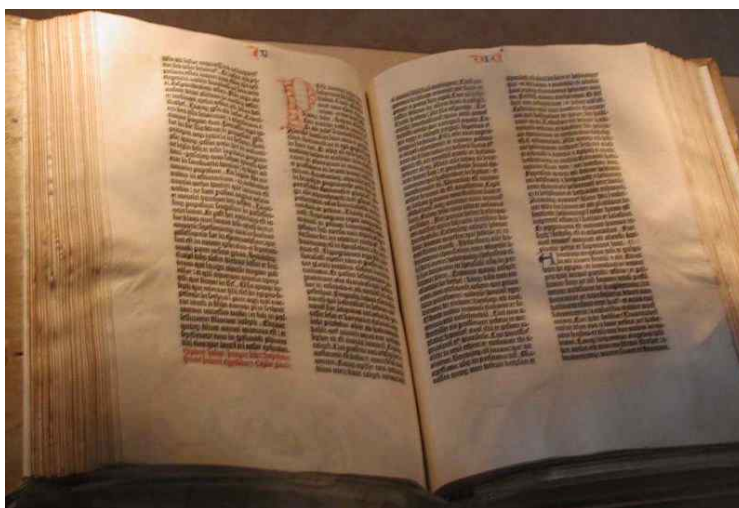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9:15)

I will plant Israel in their own land, never again to be uprooted from the land I
have given them. (Amos 9:15)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예루살렘)에서 오사
야곱(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1:26-27)

and so all Israel will be saved; just as it is written, "THE DELIVERER WILL
COME FROM ZION, HE WILL REMOVE UNGODLINESS FROM JACOB. THIS IS
MY COVENANT WITH THEM, WHEN I TAKE AWAY THEIR SINS." (Romans
11:26-27)

이와 같이 상징적 해석이 더 깊은 의미를 더하여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지나치게 주관적인 상징적 해석은 굳이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Bible>

출처 :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중에서 **창조**

"깃털달린 공룡" 전시에 빠진 깃털 (Feathers Missing from 'Feathered Dinosaur' Display)

미국 델러스의 네이처 앤 과학 박물관(Museum of Nature & Science)에서는 현재 중국에서 발견된 공룡화석을 특집으로 하는 '중국룡(Chinasaurus)'이라는 이름으로 전시회가 열렸다. 이것들 중 일부 화석은 아마도 공룡에서 조류로 진화하는 진이형태 종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깃털 달린 공룡'은 주된 특징 즉, 깃털이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룡 전시회를 홍보하고 있는 한 웹사이트에서, 그 박물관의 수석 고생물학자인 앤소니 파이오릴로(Anthony Fiorillo)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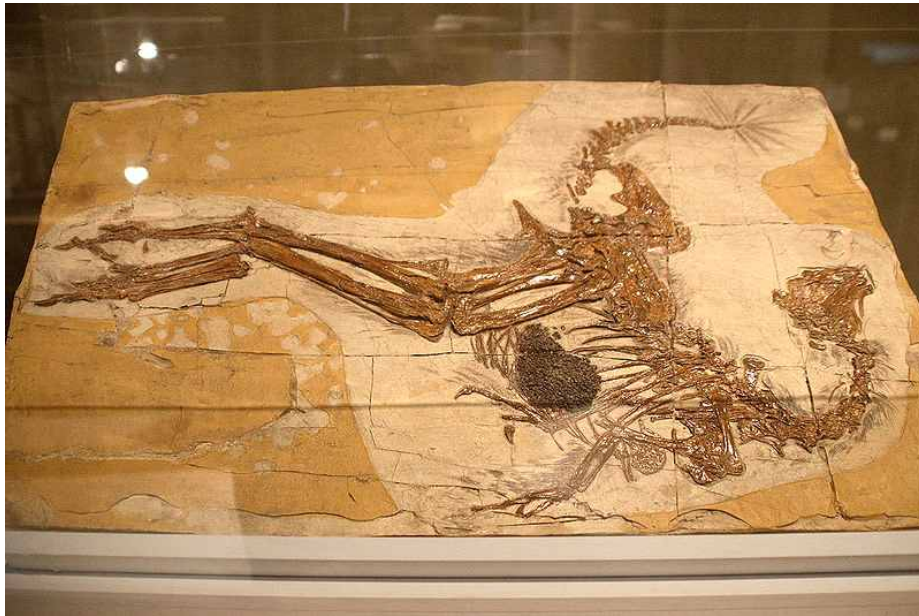
“중국에서 발견된 공룡 화석들은 공룡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켰는데, 그것은 깃털 자국 혹은 인상(impressions)을 지닌 아주 많은 정교한 공룡 뼈들의 발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발견은 공룡 그룹들 사이의 진화적 관계와, 공룡 생리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습니다. 게다가 미술가들은 공룡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다시 생각해보는 현장견학의 날을 가졌습니다[1].”

마찬가지로, 책임 고생물학자인 론 티코스키(Ron Tykoski)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또한 뼈 주변에 깃털 흔적이 보존된 조류와 비조류 공룡 뼈들이 많이 발견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화석이 놀랍게 보존되어있는 두세 곳의 ‘중국 화석’ 지(Chinese fossil sites)가 있다. 그것은 공룡의 ‘모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도록 했습니다[1].”

그러나 그 전시회는 진짜 깃털달린 공룡을 보여주기보다 “어떤 공룡 계통에서 조류가 생겨났는지”에 대해 어떠한 증거도 없는 전시물을 보여주고 있을 따름이다[1]. 예를 들면, “깃털 달린 공룡” 카우덱스(Caudipteryx)라는 현장(in-situ) 화석의 색칠한 유리섬유 복제물(a painted fiberglass facsimile)이 전시되어 있다. 정말 이상하게도, 그 모형은 섬유나 깃털에 대한 분명한 암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런 종류의 전시회가 조류의 기원에 대한 진화론적 이야기의 그러한 주된 부분을 지지하기에 적절할까?

카우딕테릭스는 조류의 용골돌기(keel bone), 또는 조류 같은 부리(beak)를 가지고 있지 않다. 조류와 달리, 카우딕테릭스는 대퇴부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고관절을 가지고 있다[2]. 따라서 그것은 조류도 아니고, 전이형태도 아닌, 아마 공룡일 것이다. 오늘날 어떠한 파충류도 깃털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단지 조류만 깃털을 가지고 있다. 원래 화석에서 발견된 섬유 같은 인상(impressions)은 깃털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야기되었는가? 아마도 그것들은 화석화 과정에 의한 산물이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부패한 피부 섬유일 것이다.



카우딕테릭스(‘꼬리 깃털’이란 뜻) 화석 복제품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Caudipteryx>

사실상, 진화론자인 알란 페두시아(Alan Feduccia)는 부패한 피부에 대한 그의 실험으로부터, 화석에서 섬유처럼 보이는 특성은 마치 콜라겐(collagen) 섬유처럼 보인다고 보고했다[3]. 만약, “공룡의 깃털”이 전혀 깃털이 아니라면, 조류 진화의 가능성을 예상케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었던 유일한 증거가 존재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4].

중국룡 전시회는 일부 종류의 공룡이 조류로 진화했다는 엄청난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제적 과학증거를 하나도 제공하지 않았다. 대신에, 깃털 달린 공룡은 “아마도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는 색칠한 복제물들이 진화론의 깃털달린 동화를 묘사하고 있을 따름이다. **참조**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kr)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이메일 주소(creation@creation21.or.kr)로 요청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달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